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새로운 상호관세 8/1일부터 시행. 인도·브라질 등은 미타결
  - 미국 6월 PCE 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일부에서는 경기둔화 가능성 제기
  - 미국 Apple, 4~6월 매출 예상치 상회. Amazon은 다소 회의적 실적 전망 제시
  - 일본은행, 금리 동결.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 인상 기조는 유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8/1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로 인한 불안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2%], 금리 강보합[+0.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 제약사에 대한 압박,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상승  
유로화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월비 상승한 6월 PCE 물가 등으로 강보합 마감  
독일은 예상치 하회한 7월 소비자물가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90.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2.6원, 0.40% 상승). 한국 CDS 약보합

|    |      | 7/31일   | 7/30일   | 전일대비   |                 |       | 7/31일   | 7/30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6,339.4 | 6,362.9 | -0.37%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4.37%   | 4.37%   | +0bp    |
|    | 유럽   | 546.11  | 550.24  | -0.75% |                 | 독일    | 2.70%   | 2.71%   | -1bp    |
|    | 중국   | 3,573.2 | 3,615.7 | -1.18% |                 | 영국    | 4.57%   | 4.60%   | -3bp    |
|    | 일본   | 41,070  | 40,655  | +1.02% | CDS<br>5y       | 한국    | 22bp    | 22bp    | -0bp    |
|    | 한국   | 3,245.4 | 3,254.5 | -0.28% |                 | 중국    | 41bp    | 42bp    | -1bp    |
|    | 달러지수 | 100.03  | 99.82   | +0.22% | 위험<br>지표        | EMBI+ | -       | 353     | -       |
| 환율 | 유로화  | 1.1415  | 1.1405  | +0.09% |                 | VIX   | 16.72   | 15.48   | +8.01%  |
|    | 엔화   | 150.75  | 149.51  | -0.82% |                 | WTI유  | 69.26   | 70.00   | -1.06%  |
|    | 위안화  | 7.2000  | 7.1972  | -0.04% | 원자재             | 구리    | 435.5   | 558.6   | -22.05% |
|    | 원화   | 1,387.0 | 1,383.1 | -0.28% |                 | 금     | 3,289.9 | 3,275.2 | +0.45%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백악관, 새로운 상호관세 8/1일부터 시행. 인도·브라질 등은 미타결

-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해당 명령은 8/1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시행된다고 발표. 이는 4월 처음 공개한 국가별 관세 계획의 일환으로 EU,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는 합의를 마쳤고, 인도와 브라질 등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
- 다만 이러한 계획이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인지는 불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국가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래빗 대변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제시를 회피
- 트럼프 대통령은 8/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와 징벌적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부정적 의견 피력. 브라질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이유로 6일부터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또한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율 적용을 90일 유예하고 계속해서 추가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
- 한편, 17개 대형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 낮은 가격으로 신약을 제공할 것을 요구.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기틀은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 아울러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6월 PCE 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일부에서는 경기둔화 가능성을 제기

- 6월 PCE 물가지수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6%, 0.3%를 기록했고, 이는 모두 4개월래 최고치. 근원 PCE 물가지수의 경우 2.8%, 0.3%로 전월(각각 2.8%, 0.2%) 대비 보합 및 상승. 개인소비는 전월비 0.3% 늘어 예상치(0.4%) 하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소비 둔화의 신호가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성장이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평가
- 7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비 소폭 증가(21.7만건→21.8만건)했으나 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에 따른 불안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라고 진단

## ■ 미국 Apple, 4~6월 매출 예상치 상회. Amazon은 다소 회의적 실적 전망 제시

- Apple의 4~6월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904.4억달러, 1.57달러로 예상치(각각 895.3억달러, 1.43달러) 상회. 이는 아이폰 매출 호조 등에 기인. Amazon 역시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1677억달러, 1.68달러로 예상치(1621억달러, 1.33달러) 상회했으나 대규모 투자로 7~9월 기간의 이익은 시장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

## ■ 독일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유로존 6월 실업률은 전월비 보합

- 독일 7월 소비자물가(HCIP)는 전년동월비 1.8% 올라 전월(2.0%) 및 예상치(1.9%) 대비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ECB의 9월 금리 동결 및 10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한편, 유로존의 6월 실업률은 6.2%로 전월비 보합. 다만, 이는 집계가 시작된 '08년 이후 최저 수준

## ■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4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업 PMI는 49.3으로 전월(49.7) 대비 하락. 4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임을 시사. 시장에서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여름 기간의 제조업 활동 둔화, 고온과 홍수 등의 날씨 영향, 미국과의 무역갈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 일본은행, 금리 동결.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 인상 기조는 유지

-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0.5%의 금리(익일물 콜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 우에다 총재는 기존의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경제 및 물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한편 경제 및 물가 전망보고서에서는 '25회계연도의 성장을 전망치(0.5%→0.6%)는 상향한 반면 '26 회계연도의 전망치는 이전과 동일(0.7%→0.7%). 시장에서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연내 1회의 금리인상을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8/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고용보고서·ISM 제조업 PMI·미시건대 7월 소비자심리지수
-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미국 트럼프와 연준의 대립,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NYT

(Trump's Fight With the Fed Won't End With Rate Cuts)

- 연준 파월 의장은 7월 FOMC에서 9월 금리인하를 확신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언. 다만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는 1% 수준까지 낮추기 원하는 트럼프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이에 연준은 트럼프에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특히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 트럼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관세정책의 여파 때문임을 반복하여 거론. 또한 다수의 위원은 현 상황에서 약간의 제약적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를 감안한다면,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차이에 따른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 미국의 생산성 향상, 부채문제 완화에 긍정적이나 근본적 해결은 기대난 - 블룸버그

(One way to ease the US debt crisis? Productivity)

- 의회예산국은 연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을 억제하여 미국의 부채 문제를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 다만 이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일부는 생산성 증가가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Deutsche Bank). 또한 생산성 향상의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
- 생성형 AI가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실제 효과는 예상보다 낮거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소지. 생산성 향상은 미국의 재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

### ■ 미국 증시, 다수의 가치평가 지표 적용 시 고평가 관련 주의가 요구 - Financial Times

(Reasons for caution amid America's triumphant market surge)

- 최근 미국 주가는 기술기업의 양호한 실적, 자금 조달의 용이성, AI 등 첨단기술의 광범위한 확산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지속.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경계심 유지할 필요. 첫째, S&P500의 실러 P/E 비율은 40 근처로 장기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동시에 닷컴버블 시기의 정점 44에 근접
- 아울러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매출비율(PSR)도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GDP 대비 총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반면, 배당수익률은 약 1%로 급락. 이 외에 주요국의 공공부채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 미국 주도 관세 체제에 대한 불안 증폭 등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기업실적 저하를 초래할 소지

- **미국 달러화 반등, 反트럼프 거래 저해 등으로 유로화 및 신흥국 자산에 부담 - Reuters**  
(Dollar's surprise rebound stymies anti-Trump trades)  
○ 금년 상반기 달러화 가치는 1973년 이후 최악의 기간을 보냈으나, 7월에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 유지, 양호한 2/4분기 GDP, 무역전쟁 우려 완화 등으로 연초 이후 월간 기준 첫 상승을 시현. 또한 수입비용 증가 상쇄를 위한 강달러 전략 등이 달러화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달러화 약세 추세의 중단 가능성도 제기(Pictet Asset)  
○ 이에 7월 유로화는 '23년 5월 이후 달러화 대비 가장 큰 월간 하락이 예상되며, MSCI 신흥시장 통화지수도 올해 처음으로 월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7/31일 MSCI 아시아 신흥국 주가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며 2주래 최저치. 한편, 미국의 양호한 경제 여건과 달러화 강세 예상 등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反트럼프 거래)은 다소 약해질 전망
- **연준 파월의 금융시장 영향력, 대내외 압력 요인에도 지속될 전망 - The Economist**  
(Despite double dissent, Jerome Powell retains his hold on markets)
- **연준 파월의 관망 기조, 두 달 내 미국 경제의 향방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 - WSJ**  
(Powell's gamble: That the economy will reveal its true self in the next two months)
- **미국 경제지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표본 축소 등이 신뢰성 저해할 우려 - 블룸버그**  
(America's Economic Data Disaster Is Worse Than We Thought)
- **미국 트럼프 무역협정, 소비억제·저축증가 유도로 미국의 '유럽화' 초래 - WSJ**  
(Trump's Trade Deals Make America European Again)
- **미국 주요은행의 유가 전망 상향, 관세 불확실성·생산량 증가 예상 등은 부담 요인 - WSJ**  
(Major Banks Nudge Oil Forecast Higher But U.S. Tariffs, OPEC+ Hikes Weigh on Outlook)
- **중국 중소기업의 수출 고용 둔화, 美中 관세전쟁과 당국의 첨단산업 강조 등에 기인 - NYT**  
(China's Small Workshops Are Hurting. Trump's Tariffs Are Only One R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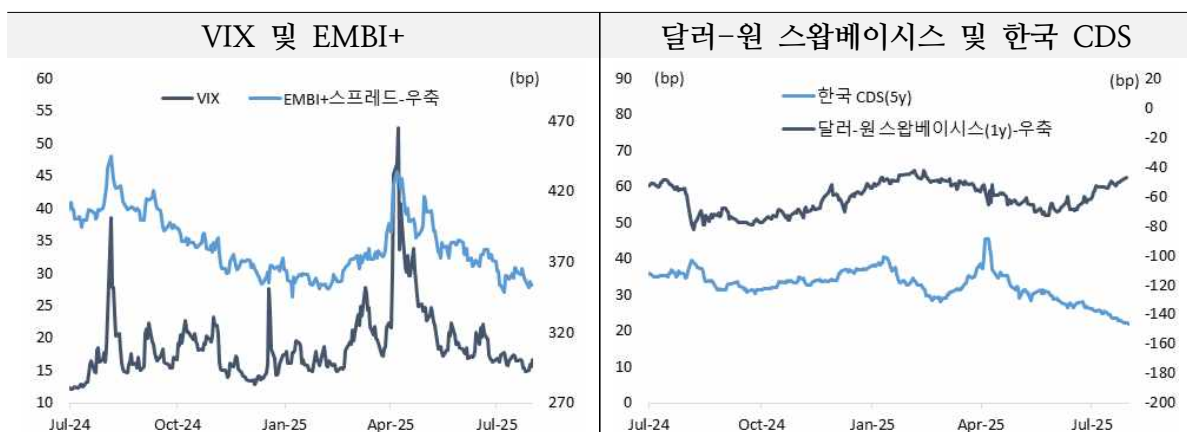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